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8 예수의 본성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8: 예수의 본성

- 8.1 예수의 본성:서론
- 8.2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점
- 8.3 예수의 본성
- 8.4 예수의 육신성
- 8.5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변론 27: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이다”

8.1 예수의 본성: 서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품으로 발전하여, 죄에 승리한 까닭에 그가 하나님께 높임 받은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일반 그리스도교계의 생각은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다. 많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교리는 예수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 받을 수 없고, 범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약.1:13-15),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가 그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생활한 그의 삶은 보통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전혀 경험하지 아니한, 인간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으로, 즉 인간의 영적 육신적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삶이었을 것이다.

극단적인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기이(奇異)한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가 천사이든가, 또는 요셉의 육체적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 타락 이전에 아담의 것과 같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서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견해는 인정할 수가 없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반면에 예수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창조되었던 것이다”. 예수는 인간적 부친이 없지만, 모든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출생하였다.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죄성(罪性)을 가진 그가 절대로 범죄나 오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실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셨었지만, 그의 생활에서 인간의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온전하였던 것은 항상 죄의 시험을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온전한 생활은 우리를 구속(救贖)할 수 있는 참으로 가치있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온전하였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런 견해는 예수께서 죄와 인간의 육신성을 이기신 승리자의 위대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수는 인간의 죄성(罪性)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 모두와 같은 육신성, 즉 죄성(sinful tendencies)을 가지고 있었지만(히.4:15),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죄를 극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道)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和睦)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화목케 하였다는 것이다”(고후.5:19). 창세 전에 세우셨던 그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이었다.

2. 예수의 본성

8.2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할 정도까지 강조하고 있는 그 구절들과, 그리고 그의 인간적 육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후자의 일련의 구절들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 아니라는 것,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게 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the Council of Nicea)에서 사용된바, 그 공의회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 교리’가 공포되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교리가 그리스도교계에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서에는 도무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과 같은 국면에 관해서는 학습 9에서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이 학습을 시작함에 있어, 구원(救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요. 3:36; 6:53; 17:3).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와 연합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요약한 말씀은 딤후. 2:5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숙고하면서 다음의 결론을 상고해보자:-

-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 만일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또한 하나님이라면, 두 분의 하나님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 뿐이라”(고전. 8:6)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론자들의 거짓 교리인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구약성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야웨를 말하고 있다(사. 63:16; 64:8).
-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또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 그 “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스도가 “중보자(中保者)”라는 것은 ‘매개자’를 뜻하는 것으로, 죄있는 사람과 죄없는 하나님을 매개하는 자는 죄성이 없는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다. 예수는 인간의 죄성이 있었으나, 전혀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는 사람이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예수의 본성 3

구약성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민.23:19; 호.11:9) 여러 번 말하였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주 호칭하였고, 분명히 그를 “인자(人子)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었다”(눅.1:32).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으로”, 그만이 홀로 최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임으로”,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다. 하나님과 예수에 대하여 사용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와 유사하지만, 아버지와 결코 동일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없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간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많은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삼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시험받지 아니한다(약.1:13). 예수는 시험을 받으셨다(히.4:15).

하나님은 죽지 아니한다(딤후.6:16). 예수는 3일 동안 죽으셨다(마.12:40).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만져보았다.
(딤후.6:16; 출.33:20). (요일.1:1은 이것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느냐,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하는 선택을 강요 당한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선택이 있었으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범죄치 아니하였지만,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다. 다윗에게 약속된 그 후손은 그리스도였던 것이다(삼하.7:12-16). 그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범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14절).

8.3 예수의 본성

이 ‘본성(本性- Nature)이란’ 근본적으로 사물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습 1에서, 성서에는 오직 두가지 본성,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자면, 죽지 아니하는 것,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본성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는 전적으로 그 악한 육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그 ‘본성이라’는 낱말을 정의했듯이 그리스도는 두가지 본성을

4 예수의 본성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그리스도가 우리와 한가지로 시험을 받았었다(히.4:15).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온전하게 되었고,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다. 그 시험의 근거가 되는 악한 생각은 우리 안에 있으며(막.7:15-23),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인 것이다(약.1:13-15).그러므로,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인간성을 가져야 했다.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이 예수의 본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2:14-18):-

- “자녀들은(우리들) 혈육에(인간의 육신성) 함께 속하였으매,그도(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Diabolos)를 없이 하시며,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이는 실로 천사들의 속성에 속하지 아니하고,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의 속성에 속하셨느니라.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인간성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역설하고 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었다”(히.2:14).이것은 전체적으로 그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히.2:16에는,그가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므로,천사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다.이런 까닭에,그리스도는 반드시 인간성을 가져야 했다.“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히.2:17).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 수가 있었다.말하자면,예수께서 인간성을 가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언제든지,하나님 앞에 나아가,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로 그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요일.1:9).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죄의 시험을 받았으나,우리는 실패하지만,그는 그것을 이기고 온전하였다.이런 까닭에,“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해주시는 것이다(엡.4:32).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시험 받았었고,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요.4:24).하나님은 형체의 몸을 가지셨지만,혈육이 아닌,“영”이 그의 본성이다.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지 아니하셨던 것을 의미한다.하나님의 말씀을 간직 한 사람들이 모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다”(롬.8:3).

예수의 본성 5

성서의 “죄”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작동하게 하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결국 “죄의 삯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온전할 수가 없다. 그 육신을 구속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 죄를 유발할 수 있는 “죄 있는 육신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비록 그가 우리와 같이 실패하여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시험을 극복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죄 있는 육신이라”(sinful flesh)고(롬.8:3) 묘사하고 있다. 그 몇절 앞에서,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그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롬.7:18-23).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sinful flesh)을” 가졌다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롬.8:3).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육신에서 피할 길을 내시기 위하여, 그는 그 육신을 극복한 것이었다. 예수는 그의 본성의 죄성을 더욱 격렬하게 지각하였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선하다고” 그 본성으로 온전하다고 시사하면서, 그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즉각,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10:17-18)고 하셨다. 또 한번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기적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시험하였다. 예수는 그것에 편승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요.2:23,24)고 기록되었다. 인간성에 관한 놀라운 지식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 그 자신 속에 있는 그 악한 육신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칭송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인간의 악성 즉 육신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8.4 예수의 육신성

복음 기록들은 예수께서 온전히 인간의 육신성을 소유한 자였다는 많은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쉬면서 물을 마셨고(요.4:6),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요.11:35). 그 인간성의 상태를 최대로 발휘한 실례가 그의 최후의 고통에서 나타나서, 그의 인간성을 완전히 입증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요.12:27). 그는 기도할 때에 그의 십자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26:39).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 또는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6 예수의 본성

그리스도는 생애 동안 그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상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요. 5:30).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는 시련들에서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국면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서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이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아이가 자라며 영으로 강하여지고(in the spirit),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엡. 4:13과 비교하라). 이 두구절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성장과 함께 그의 영적 발전을 묘사하고 있다. 그 성장 과정이 그의 육체와 영에 모두 일어났다. 만일 예수가 그 삼위일체론의 그 하나님이시며, 그 아타나시오 신경(信經-Athanasian Creed)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의 생애의 끝에서도, 그리고 하늘에 올리워 가신 후에도 그의 재림의 일시(日時)를 아는 자는 아시고 계시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확실히 모른다고 하였다(막. 13:32).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숙제이다. 그리스도도 또한 모든 자녀와 같이,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는 과정을 지내야 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영적 성장)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히. 5:8,9). 바울은 그와 같은 예수의 영적 성장 과정이 그 십자가에 죽음으로 최고에 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빌. 2:6-8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의식적으로 그의 영적 발전을 모두 잊어버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는 그 자신이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깊이 의식하고 노력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요했더라면, 그것은 그를 단지 하나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는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이 동기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친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강요하셨다면,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강조해온 말은 거짓이 된다(엡. 5: 2, 25; 계. 1:5; 갈. 2:20).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온전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은 우리로 그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자기와 개인적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의 본성 7

그리스도의 자원적(自願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10:17-18).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것은(마. 3:17; 12:18; 17:5),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과 어떤 명목상의 연합으로서 인간의 형태로 생활한 것인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자원적 순종에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었으나, 그가 의식적으로 순종을 택하였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이 필요하였다

예수는 그의 인간성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작은 질병, 피곤함 등등을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어도,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간에 어차피 죽었을 것이다. 이 견해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다. 더욱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려면, 예수는 “육체에 게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고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었다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롬.6:9)고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시편의 많은 구절이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 그 시편의 어떤 구절은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다. 이로서 시편의 다른 많은 구절도 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 **시.91:11,12:** 예수님이 시편을 마.4:6에서 인용하였다. 시.91:16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내가 장수함으로(영생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69:21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힘에 관한 말씀이다(마.27:34). 그 시편 전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시.69:18,29).

- **시.89편:**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해설이다. 시.89:26은 예수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 “제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도다”.

8 예수의 본성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들으신 것이다(히.5:7).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신약성서의 중요한 주제이다:-

-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5:30-31).
-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행.3:13-15).
-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2:24,32-33).
- 예수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요.17:5; 13:32; 8:54과 비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에, 만일 예수가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면, 이 모든 역설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말이 될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구원 받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위(優位)에 있으며, 그는 예수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가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이 두 본성(Nature)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다. 본성이라는 그 낱말이 의미하는대로, 한 존재는 한가지 본성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간성을 가졌었다는 많은 증거를 받아 들여야 할 뿐이다.

8.5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알게된다. 삼위일체론이 말과 같이, “만일 그들이 동등하다면”, 우리는 그들의 관계가 동등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유사하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전.11:3).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존재하는바, 그들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있는 것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고전.3:23).

예수의 본성 9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주 부른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벧전. 1:3; 엡. 1:17)고 묘사되어 있는 사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었던 동안과 같은 관계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하나님보다 못했었다고 그 삼위일체론자들이 논쟁을 벌인다. 신약성서의 편지들은 그의 승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아직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예수는 아직도 아버지를 그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지 50년도 더 되어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때에도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계. 1:6). 이 책에는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3:12)고 말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지금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동일한 방법으로 아버지와 관계하였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요. 20:17)고 말하였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그의 겸손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 27:46).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 그 자신이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그들의 관계의 특성이 입증된다(히. 5:7; 눅. 6:12).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신에게 기도하시겠는가?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다(롬. 8:26, 27; 고후. 3:18과 비교).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과 별반 변한 것이 없는 것을 확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그에게 기도를 올렸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의 것이다.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행. 3:13; 사. 42:1; 53:11).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따른다. 그가 주인과 동등할 수가 없는 것이다(요. 13:16). 그리스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고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요. 5:19, 30).

10 예수 본성

변론 27: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11). 이 구절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그의 출생에서 그는 사람이 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습 7과 8에서 공부한 것은 모두 다르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구절을 가지고 성서 전체의 가르침을 모순되게 할 수는 없다. 이 구절은 모든 삼위일체론자들이 그들의 교리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는 의의있는 성구이다. 예수가 하늘에서 하나님인 그 자신을 어떻게 변화하여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다음의 그 분석들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른 뜻을 알게 할 것이다.

1) 이 구절들에는 그 삼위일체론자들의 논증과는 단호하게 모순된 것들이 많이 있다:-

a)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5절) 예수 그 자신이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고 그를 높이시기 전에는 그가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였다.

b) 그리스도가 그 스스로 겸손하게 했던 전 과정과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11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2) 이 구절의 문맥은 주의깊이 고찰해야 한다. 바울은 불시에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는 빌.1:8에서 예수의 마음에 관해 말하고, 빌.1:27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그 2장 첫절에서부터 전개해나간다: “마음을 같이 하여, ...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빌.2:2-5).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봉사하는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구절들은 그 본성이 변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가 과시하였던 겸손한 마음을 해설하고 있다.

3) 예수는 “하나님의 형체로” 있었다. 우리는 예수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으

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학습 8.3에서 확증하였다. 이 구절의 현대 역본은 헬라 원본과는 많이 다르게 상세하게 풀어 썼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게하고 있다:- 그 “형체라”고 번역된 헬라어 “**Morphe**”는 그 본성을 의미하지 아니한 것이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빌.2:7) 가졌다는 말에서 입증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 - 즉 하나님의 인상(image), 그와 닮은 것을 가졌었지만, 종의 형체를 취했었다. 종의 본성은 어떤 다른 사람과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문맥과 일치하게, 비록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 온전하였지만, 그 스스로 종의 하찮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나중의 몇 구절에서는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 받으라”(빌.3:10)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형체”, 그 ‘**Morphe**’에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본성에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바, 그 인간성을 바꿀 수는 없으나,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에 가졌던 정신 상태, 그 **Morphe**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헬라어 ‘**Morphe**’는 형상, 인상, 또는 닮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인간은 “경건한 모양”(Morphe)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딤후.3:5). 갈라디아서에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Morphe)”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갈.4:19).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으므로, 또는 온전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라”고 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었지, 그와 동등되게 여기든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N.I.V. 역본은 이 구절이 좀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예수가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이 역본이 바르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이론은 성립할 수가 없다. N.I.V. 역본에 의하면, 예수가 일순간도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을 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신분이었다.

4)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 죽음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사.53:12), “오히려 자기를 비웠”, 또는 “영예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종과 같은 태도로 행하므로(요.13:14), 천한 “종의 형체로 자신을 취하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마.20:28).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사.52:14)는 말씀은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다(사.53:12)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점차적으로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한 과정은 그의 삶과 그의 죽음 동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의 출생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수의 마음과 관련된 이 구절의 문맥은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한 예수의 마음의 겸손성이다. 이 구절들은 우리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의 전생애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하였던 그의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삼위일체론자들이 이 구절들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

12 예수의 본성

스도가 그 본성으로 하나님이었으며 동시에 인성이 있었다면, 예수는 세상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자들은 그가 하나님이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이 만든 인간의 교리이며, 성서의 교리가 아닌 것이 입증되고 있다.

6) 끝으로 “하나님의 형체라”고 한 구절에 관하여 한마디 해야겠다. 그와 같이 번역된 헬라어 원본은 본래부터 ‘영원부터’ 그렇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행.7:55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했던 것도 아니다. 다른 실례는 눅.16:23; 행.2:30; 갈.2:14에 있다. 그러므로 그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체였다”는 것은 오직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그의 시작부터 그가 그러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학습 8: 학습 문제와 해답

1. 성서는 하나님이 세(3)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2.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점 세 가지를 말하라.

3. 다음 중에서 어느것이 예수가 우리와 다른 점인가?
 - a) 그는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 b)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 c) 그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본성을 가졌었다.
 - d)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였다.
4. 다음 것들 중에서 어느것이 예수가 하나님과 유사한 것인가?
 - a) 그는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었다.
 - b) 그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성품을 가졌었다.
 - c) 그는 하나님만큼 지식이 있었다.
 - d)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였다.
5. 다음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예수가 우리와 같다는 것인가?
 - a)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 받은 경험이 있다.
 - b) 그가 젊었을 때에는 범죄하였다.
 - c) 그는 구원이 필요했었다.
 - d) 그는 인간의 육신성이 있었다.
6. 다음의 어느 것이 사실인가?
 - a) 예수는 온전한 본성과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 b) 예수는 죄성을 가졌으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 c) 예수는 신성과 인성 두가지를 가졌었다.
 - d) 예수는 아담이 죄 짓기전의 그 본성을 가졌었다.
7. 예수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는가?

